

들어가며...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 주려
 어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정신호 목사의 곡 [선교사] 라는 찬양입니다. 한 때 참 많이 부르며 도전받았던 곡입니다.
 치앙라이 비전교회 설립 3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며 이 곡에 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치앙라이 비전교회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성장하여 현재 총 27명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유치부 1명, 유초등부 3명, 중고등부 2명, 청년대학부 9명, 장년부 12명). 리더들을 중심으로 찬양팀이 형성되었고, 주일 오전에는 예배로, 오후에는 주일학교, 청년부, 장년부로 나누어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주중 성경공부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승부를 거는 치앙라이 비전교회가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3살 된 어린 교회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 좀 더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앙라이비전교회 설립 3주년 감사예배





치앙라이 비전교회를 3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주년 예배를 위해서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신 김철 선교사님, 축도를 해 주신 홍영철 선교사님, 그리고 3주년을 기쁨으로 함께 축하해 주신 선교사님들과 치앙라이 비전교회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치앙라이 비전교회를 위해 사랑과 기도로 동역해 주신 모든 동역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치앙라이 비전교회는 비록 많은 식구가 아니지만 **타이족, 타이야이족, 아카족, 카렌족, 라후족, 야오(미엔)족, 다라양족**, 그리고 **한국인**인 저와 이금숙 선교사까지 모두 **8개 민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3주년에 특별행사로 각 민족의 언어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곳이 바로 계시록 7장 9-10절의 말씀이 성취된 천국이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비록 치앙라이 비전교회가 이제 막 3년이 된 어리고 작은 교회이지만,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바로 이곳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임을 보게 됩니다.

막내 **민하**가 잠시 휴학을 하고 와서 치앙라이에 5개월 가까이 함께 있었습니다. 민하가 함께 있으면서 저희와 교회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찬양팀에서 함께 찬양을 하며, 교회 3주년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했던 시간들이 민하의 **대학생활과 앞으로의 삶**에 **변곡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과 가정, 교회 그리고 섬기시는 모든 영역에서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치앙라이 비전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잘 세워 믿음이 성장하고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이제 비록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어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기숙사에 있는 네명의 대학생들이 잘 훈련받아 교회의 기둥같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10)

땅 끝에서 윤상호, 이금숙(아인, 하림, 민하) 선교사

2025년 7월 8일

